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94.28	↓ 코스닥	813.38
	(-20.67)		(-15.14)
↓ 금리 (미국 9년)	3.484	↑ 환율	1311.20
	(-0.047)		(+7.20)

고금리 정기예금 만기 임박 은행권 금리경쟁 불 붙었다

5대은행 정기예금 잔액 12.7조 ↑
작년 高利예금 만기로 재가입 늘어

내년 대출확대 위해 예금확보 필요
수협 4.35% 등 4대 속속 선보여

지난해 말 최대 연 5~6%대 고금리로 가입한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오자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내년 아파트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대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예금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868조 7369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2조 762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3조 6835억원에 이어 두 달 간 26조 4462억원이 늘었다.

예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난해 말 고금리로 가입한 은행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예금에 재가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채와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들은 연 5%, 저축은행은 연 6%대의 예금상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예

금은행의 총 예금 잔액은 지난해 1월 781조 8888억원에서 지난해 12월 989조 1313억원으로 26.5% 늘었다. 만기시기, 시장불안으로 주식투자 등이 어려워진 만큼 또다시 재가입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리지 않은 점도 은행 예금잔액을 키웠다. 지난해 저축은행은 늘어나는 대출 만큼 예금잔액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렸다. 올해 들어 대출비중 확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면서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총 예금잔액은 지난해 1월 103조 1144억원에서 12월 119조 7108억원으로 16% 증가한 뒤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9월 예금잔액은 116조 5901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6% 줄었다.

이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예금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내년 아파트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대출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예대율에 따라 예금을 확보해야 한다. 예대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잔액 대비 대출 규모로, 예대율이 100%를 넘어서면 건

전성 악화 우려가 커진다.

이날 5대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95~4.00%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같은 5%금리는 아니지만, 4%대에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이다. 최고우대금리는 4.35%로 기본금리 3.30%에 첫 거래, 활동계좌와 보유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제주은행의 ‘J정기예금’은 기본금리 2.10%에 비하면 가입, 홈페이지 로그인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최고금리는 4.25%다. 부산은행의 ‘더(The) 특판 정기예금’은 기본금리 3.75%에 우대금리를 더해 4.15%의 최고금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과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은 우대금리 없이 기본금리로 4.0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당분간 4%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은행에서 4%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당분간 예금 가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尹, 현대차에 ‘300억불 수출의 탑’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에게 3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뉴시스

尹 “수출 진흥이 곧 민생 걸림돌 규제 과감히 혁파”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해외 마케팅 지원 대폭 확대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신설 등
우리기업 운동장 넓혀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다. 기업인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우리기업의 수출 활력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비롯해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출은 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경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글로벌 안보 위기를 더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취임 이후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수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1년 7개월 동안 우리 기업인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90여 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나 우리 수출과 세일즈를 위해 외교활동을 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1년여 만에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며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출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동차는 친환경차,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으로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전은 지난해 이집트 엘다바에 이어 올해 루마니아 원전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했고, K-방산도 수출 주력부대의 일원으로 가세했다”며 “1963년에 처음 출시된 라면은 60년 만에 1조원 수출의 벽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은 K-푸드뿐 아니라 스마트 농장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전 세계에 계속 넓혀나갈 것”이라며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는 수출을 위한 큰 자산이다.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를 통해 수출의 길을,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고 키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전시회, 수출 지원 바우처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이 자금 걱정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3분기 성장률 0.6%… 올해 1.4% 가능성

반도체 업황 개선, 수출·생산 ↑
실질 국민총소득도 1.6% 늘어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4% 증가한 수준이다. 전 분기에 감소했던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1.6%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가계·기업·정부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전기 대비 1.4% 증가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감소했지만 컴퓨터·전자 및 광



학기기가 증가한 영향이다.

건설업도 전분기 대비 2.3%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이 줄었지만, 항공운송 등 운수업과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이 늘며 0.3% 증가했다.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부소비가 건강보험급여비 등 사회보장현물수혜

를 중심으로 0.2% 늘고, 민간소비가 음식·숙박·오락문화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0.3% 증가했다.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모두 전 분기 -2.1%, -0.1% 감소한 뒤 증가세로 전환했다.

건설투자도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이 1.2% 늘고 도로 등이 증가하며 토목건설이 4.8%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4.7%)가 줄며 2.2% 감소했다.

3분기 수출은 반도체·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3.4% 늘고, 수입도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2.3% 증가했다.

최정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수출과 생산이 2분기 연속 증가했다”며 “재고수준 또한 9월 이후 하락하고 있어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 /사진 뉴시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요구에 “통합과 단결” 강조

▲ 文 전 대통령, 영화 ‘서울의 봄’ 관람 후 “분노가 불의한 현실 바꾸길” 소감
▲ 정부, 필리핀서 일어난 민간인 공격 ‘미사 폭탄테러’ 규탄 메시지



▲ 한덕수 국무총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부 /사진 뉴시스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개정 신중론 밝혀